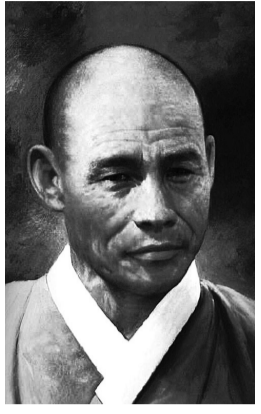


예술로 듣고 보는 '님의 침묵'



만해 한용운



지난해 서울 공연에서 정은선 무용가가 한용운 시 '당신을 보았습니다'에 맞춰 안무를 펼치고 있다. 연주에 경기광주필 오케스트라. <경기광주필오케스트라 제공>

경기광주필하모니오케스트라 25일 광주예술의전당 3·1절 공연 고전무용·시낭송·댄스·연극 등 만해 한용운 시 예술로 재해석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만해(萬海)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읽고 있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해방을 희원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하다.

만해의 시를 통해 한민족의 수난사를 돌아보고 결기를 다지는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필하모니오케스트라(경기광주필)가 '3·1절 기념 한용운이 부르는 님의 침묵'을 오는 25일 오후 7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연다. 시대적 아픔에 정면으로 응수했던 저항시인 한용운의 작품에 오케스트라와 고전무용, 시낭송과 댄스, 연극 등을 접목한 종합 예술의 성격을 띤다.

공연은 박종선 시낭송가가 '님의 침묵'을 낭송하는 것으로 막을 올린다. 경기광주필이 시벨리우스의 '즉흥곡', '핀란드어 서곡'을 배경음악으로

연주한다. 만해가 활동했던 시기 핀란드도 러시아의 압제 하에 놓여 있었다. 작곡가 시벨리우스 또한 자신의 조국 독립을 위해 음악혼을 불태웠다.

한용운의 삶과 문학을 들려주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민족대표 33인으로 활동할 당시 독립 투쟁의 일환으로 창작한 주옥 같은 시들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만해의 문학과 인생이 소개되는 시간에는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Op.72. 2번'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독립군을 모티브로 한 영화 '밀정'에서 OST로 사용돼 민족적 정서를 환기한 바 있다.

김연준의 가곡 '비가'와 채동선의 '고향'은 서울대 성악과와 파리 에콜노르말 디플롬, 이탈리아 밀라노베르디 콘서바토리 등을 졸업한 소프라노 변지영이 들려준다.

만해가 쓴 '알 수 없어요'를 '새야새야 파랑새야'를 연주하며 낭독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스크린에 시 원문을 띄워 음악과 함께 감상하는 시간이다. 또 중앙대 및 독일 함부르크 오페라과를 졸업한 테너 최용호는 김동진의 '가고파', 현재명의 '희망의 나라로'를 선사한다.

현대무용과 전통무용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황병기의 '침향무', '3·1 운동' 등의 곡은 댄서

서승현의 비보잉과 어우러진다. 서울예전 공연에 솔학부를 졸업한 서 씨는 중국 상하이, 아프리카 짐바브웨 등지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왔다.

한용운의 대표작 '나루배와 행인', '당신을 보았습니다'는 도살장이 및 승무 전수자 정은선 무용가의 춤사위에 실려 구현된다. 흰 저고리와 소복 차림으로 오케스트라 악단 앞에서 펼쳐지는 전통 무용은, 일제강점기의 한을 '몸의 언어'로 승화시키는 느낌을 준다.

이밖에 테너 최용호와 파발극회 단원들이 함께 들려주는 '독립 군가',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은 당대 독립 투쟁과 민중의 아픔을 담고 있어 깊은 울림을 자아낸다. 특히 '1812년 서곡'은 1812년 러시아가 프랑스의 60만 대군에 침략당했던 비극사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안중근 의사의 삶을 다룬 영화 '영웅' 등에 삽입돼 대중에게 익숙하다.

경기광주필 김기원 지휘자는 "이번 공연은 3·1절 105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시인인 만해 한용운을 모티브로 펼쳐진다"며 "만해의 시를 오케스트라로 빛낸 콜라보 무대는 국권을 상실한 시대 독립 투쟁을 환기했던 만해의 삶과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석 무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블금'엔 세션들 열정의 음악 속으로

카페뮤지엄CM, 2월 라인업...9일 반도네오니스트 김국주 등 화려



김국주



김현



임산동 호랭이

이번 '블금'에는 라이브 세션의 열정이 가득한 현장으로 찾아가, 로-파이(Lo-fi)하고 생생한 음감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카페뮤지엄CM(대표 정은주·CM)이 2월 'Friday Live in CM' 라인업을 발표했다. 공연은 오후 8시 CM(동구 문화전당로 29-1)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9일에는 반도네오니스트 김국주를 볼 수 있다. 리처드 갈리아노의 'Tango pour claude'를 비롯해 '미 부에노스 아이레스 큐에리도'의 곡 등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를 들려준다. 이외에도 아스트르 피아졸라와 아르헨티나 마에스트로 작품들이 레퍼토리에 있다.

호랭이의 묵직한 발걸음처럼 굵직한 선의 음악을 추구하는 '양산동 호랭이'는 16일 출연한다. 댄서 양희범이 주축이 돼 블루스의 거장 '스티비 레이 본'의 대표곡 'hide away', 'So excited', 'Pride and joy' 등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이어지는 '우리가 연인으로 끝났기 때문에'는 영국의 3대 기타리스트 중 하나인 제프 벡의 노래다. 우리나라 록의 전설 신중현의 '미인'도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해 들려준다는 계획이다. 또 자

작곡 '보노보노는 귀엽기라도 하지' 등 제록부터 이목을 끄는 곡도 레퍼토리에 있다.

이달 연이은 공연의 마지막 주자는 '김현과 범블블루'.

블루스를 기반으로 소울, 록 등 다양한 장르에서 호소력 있는 목소리와 탄탄한 사운드 보여주는 밴드다. 이전 활동명인 허니킴 밴드에서 최근 팀명을 바꿔 지난해 '서울 국제 블루스 페스티벌'에 뮤지션으로 라인업하는 등 전국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Hard to handle', '한 번 더', 'I wanna quit'을 비롯해 '담배 가게 아가씨', 'Feels like rain', 'we are bumble blue' 등이 울려 퍼진다. '새하얗게 불태웠다', '날아', '밥 먹읍시다', 'You are' 등의 곡들도 기대를 모은다.

CM 사군 음악감독은 "CM 라이브 콘서트의 2월 라인업을 여는 때보다 풍성하게 준비했다"며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디 뮤지션, 클래식 아티스트 등이 장르를 불문하고 자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관람비 5000원. /최류빈 기자 rubi@

삶의 지혜 만나는 '인문학'

29일까지 광주시민인문학 커뮤니티 111기 정기 강좌

광주시민인문학 커뮤니티 111기 정기 강좌가 오는 29일(오후 2시)까지 열린다. 전남대 정문 앞 인문학카페 노블.

월요일(5, 19일)에는 '몸, 언어, 철학' 시간으로 서명원 교수가 '체험주의: 신비화된 마음'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수요일(7, 21일)에는 '시민교육' 시간으로 신광웅 책임연구원이 '토론기법: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이야기하며 목요일(15, 29일)에는 위상복 교수가 '탐스 세미나' 일환으로 '철학의 반란'을 강독한다. 금요일(16일)에는 신우진 이사가 '하루키워드'를 주제로 신작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에 대하여 함께 나눈다.

매주 일요일에는 진정한 이사 등이 당일치기로

'호남문화기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명혜영인문교실(오후 7시)도 운영된다.

월요일 '생태주의와 페미니즘', 화요일 '일본소설로 인문학하다', 수요일 '키워드로 읽어보는 독립영화', 금요일 '베르그송 '창조적 진화' 강독', 토요일 '책매데이'가 진행된다.

신우진 이사는 "광주시민인문학은 시민참여형 강좌를 통해 인문적 통찰, 미학적 승화라는 가치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며 "다양한 인문학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가비 4만원.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

'원불교 원음방송 방송 활성화'

후원회 결성...초대 임원 위촉

WBS원음방송(사장 이관도)은 최근 소태산 기념관에서 후원회를 결성하고 초대 임원들을 위촉했다.

5일 원불교 원음방송에 따르면 원음방송 후원회가 지난 1월 25일 원불교 이관도 사장, 나상호 교정원장, 이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원 위촉식과 함께 결성된 발족식에서 회장에 이관수(화곡교당), 부회장 김대신(부곡교당), 김용현

(구로교당)이 선임됐다.

1998년 개국한 원음방송은 그동안 TV와 라디오를 통해 원음방송다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후원회 조직은 방송 환경 변화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추진됐다.

이관수 회장은 "후원회는 불특정 다수가 청취하는 공중파 방송의 활성화라는 책임감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부회장들과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관도 사장은 "원음방송 후원회를 이끌어 가겠

다고 마음 내주셔서 감사하다"며 "결실을 계기로 교단 안과 밖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상호 교정원장은 "후원회 발족과 함께 '진리의 뜻'을 토대로 후원회가 운영될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후원회 활성화에 뜻있는 분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후원회는 방송국이 있는 서울경기,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북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 외 13개교구 교구장과 기관장, 총무교정원과 긴밀한 협조로 1만5000명 후원회원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2023년 11월 29일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11월 29일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 복권위원회 | 사랑의열매